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호 [루게 제23337호] 주체100(2011)년 1월 20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장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을 즐기게 벌리고있는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분원의 연구집단은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 미생물공학을 비롯한 생물공학발전에 큰 힘을 넣으며 현대생물학의 연구성과를 농업과 의학, 식료공업분야에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성이 높은 농작물과 새 품종을 만들어내며 질 좋은 여러가지 의약품과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유전자변이를 검출하는 각종 DNA소편과 효능 높은 항중양면역치료제 등을 만들어내고 B형혈액을 O형혈액으로 전환시키는 기술, 새로 개간한 간석지논들에서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높은 소출을 내는 내염성벼종자와 병해충에 잘 견디는 내충성강냉이품종 등을 새로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생물공학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연구성과전시관, 생물제품중간공정생산도입실, 계능연구실, 식료조식배양실, 줄기세포연구실, 유전자전이식물연구실을 비롯한 분원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 실마대에

그존하게 갖추어진 각종 첨단설비들과 새로 개발된 생물공학제품들을 보시고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물공학적 방법으로 여러가

지 전염병들의 근원을 밝혀내고 난치성 병들을 치료할수 있는 의약품과 약편들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대대를 마련한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그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분원에서 첨단기술에 의거한 실용성이 높은 식물조직배양 체계 등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농산과

과수, 식료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은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과 애국열의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세계적수준의 여러가지 생물공학제품들을 만들어냈을뿐아니라 세계를 뒹고 올라설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소유한것은 이곳 일꾼들과 과학연구집단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면서 과학연구성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내일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스런 성과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같이 높은 양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면 나라의 모든 부문을 짧은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비약하려는 이들의 비상한 창조정신을 다시금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분원의 연구집단이 내놓은 착상안들을 보시고 가치있는 문제들을 제기한데 대해 치하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사이에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기발한 착상과 적극적인 발기, 대단한 실천으로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과학연구성과와 기술혁신을 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효능높은 항중양면역치료제  
재조합사람인터로이킨-2**

**기술적 특성**  
항중양활성을 가진 면역성세포들을 활성화  
암세포에 대한 특이적인 공격과 전반적인 면역계통 강화

**해결한 과학기술적내용**

- 유전자합성
- 고효도배양과 분리정제방법 확립
- 주사약제제법 확립

**적용 질병**

- 암성종복수, 신장암, 흑색소암을 비롯한 각종 암들
- 치료후 임의 재발과 전이 방지
- 간염, 결핵, 에이즈 등

**유전자공학에 쓰이는 효소 개발**

핵심기술: 유전자발현, 유전자전이, 유전자변형, 유전자발현, 유전자전이, 유전자변형

**생산공정**

균배양 - 균배양 - 분리정제 - 제품분석

**도입정형**  
김원성종합대학, 김형직시범대학, 김대대학  
농업과학기술원, 의학과학원, 평양산원 등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생물공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분원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물공학을 비롯한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과 함께 21세기의 핵심기술로 되고있는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의 먹고 입을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농업, 의학, 식료공업, 에네르기,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들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생물공학을 결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물공학은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유전병, 암 등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분원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

지하는 과학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분원에서는 생물의 특성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하여 소출이 높고 품질이 좋은 농작물품종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환경오염이 없는 생물 에네르기나 세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바다에서 풍부한 자원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 생물공학연구에서 이룩된 기적과 같은 성과들은 사람들에게 생물기술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분원에서는 생물공학과 자연과학의 다른 부문들에서 이룩된 중요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과학기술명령을 개척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도 전망성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실천은 과학기술발전의 원천이고 추동력이며 과학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최고기준이라고 하시면서 분원에서는 이미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생물공학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이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 의지를 가진 결결한 혁명가가 되여야 하며 전문지식에 정통한 능력있는 과학기술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생물공학의 발전수준에 따라 중요하게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수준과 세계적인 경쟁에서 차지

하는 지위가 평가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과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위대한 우리 당, 김정일성조선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해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게 속에서도 분원에 몸소 찾아오시어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자기들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계능연구기초기술개발**  
(제3차 과학당대5개년계획 2008-2012)

**개발대상**

- 생물소재제작과 응용
- 파우더기술에 의한 단분량생체신공
- 단백질소분의 제작
- 유전자학의 개발과 응용
- 계능자료기초응용소프트웨어개발

**계용분야**

- 사람, 동식물의 전염병진단
- 환경, 식품의 안전성검사
- 유전자의 구조 및 기능분석
- 유전자의 발현, 단백질의 기능분석
- 사람, 동물의 전염병예방 및 치료
- 새로운 유전자형질, 단백질의 약물후보 확인

계능연구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 당 책임비서인 문경덕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 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현지에서 대성산지도국과 동물원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모시는 경사에 접한 동물원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100여정보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있는 중앙동물원은 세계각지에서 사는 수많은 희귀한 동물들을 자연적인 환경속에서 볼 수 있게 꾸려진 세계적인 동물원으로서 우리 인민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재부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물원일구에 새로 건립된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사적비를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중앙동물원은 창립된 때로부터 지난 50여년간 인민들에게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문화정서생활기지로,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는 훌륭한 교양거점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물원이 걸여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이

어려있는 중앙동물원은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평생을 바쳐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된 수의병원과 수족관, 동물재주사를 비롯한 동물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물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고 참관조직을 짜고들어 많은 관람자들을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에 현대적인 수의병원까지 꾸러짐으로써 세계적인 동물원의 체모를 더 잘 갖추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물원의 종업원들과

중앙기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동물원이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하여질 만년재부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교양거점으로 그 면모가 일신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휘황찬란한 부강조국의 태일을 자기 손으로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만단을 웃으며 헤쳐가는 영웅적조선인민의 백결불굴의 혁명정신과 억센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대규모의 동물원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일뿐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교육교양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것

만큼 동물원을 잘 꾸리고 운영을 개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물원을 전망성있게 더 잘 꾸리기 위해서는 동물의 종수를 더 늘이고 그에 맞게 동물원의 물질기술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물원에서 여러종의 많은 동물들을 기르는 조건에서 먹이문제와 수의방역체계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구색에 맞는 먹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동시에 수의병원의 운영을 짜고들어 동물들을 적극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동물원에 찾아와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게 하자면 동물사들의 내부와 외부를 참관에 편리하게 더욱 완비하는 한편 휴식에 필요한 시설들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선물동물들을 비롯하여 진귀한 동물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존과 번식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양관리를 과학화하며 관리공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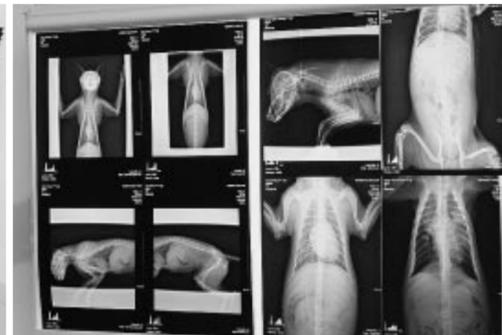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물원의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중앙동물원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지도반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중 앙 동 물 원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중국과 로씨야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최근 평안북도안의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질데 대해 강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압록강계기종합공장, 수풍배아령공장, 압록강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을 틀어쥐는 사람만이 미래의 정복자

로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최신기술도입과 기술혁신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생산설비와 공장의 현대화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밀고나가며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지도일군들이 조선식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생산과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진행하며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치밀하게 짜고들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통신은 또한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중앙TV방송, 홍콩보황위성TV방송과 신문들인 《참고소식》, 《신화매일전신》, 인터넷홈페이지 신화망도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트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안북도안의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과 함께 CNC화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대만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

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제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공장로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이야말로 나라를 불패의 강국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근본열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조신로동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 남포유리병공장 종업원들과 건설자들의 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남포유리병공장 종업원들과 건설자들의 결기모임이 19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남포시당위원회 책임임시 강양모, 남포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길준, 판매부문의 일군들, 공장종업원들과 건설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포유리병공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운 건설자들에게 보내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공장조금당비서 안삼덕의 보고에 이어 지베민 민광영, 직

장장 신유근, 강선산업건설사업소 조금당비서 유성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어 현대적인 유리병공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하고 대량생산에 들어간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날로 늘어나는 나라의 유리병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불타는 애국심과 뜨거운 애민정신을 지니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각종 유리병과 병뚜개를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새로운 첨단기술을 도입하

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공장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기술관리, 설비관리 에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적 대고조의 전풍을 빛나게 계속하여 과감한 총공격전으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승리의 영예를 떨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

장명길

희망찬 새해 진군길에 울려 퍼지는  
공동사설의 구절구절에 깃들여  
우리의 가슴 불태우는 부름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  
하며 창조하자!》

심장의 붉은 피를 풀이는 이 부름안고  
수령님 만아들로 내세워 주신  
이 나라 로동계급  
김철의 강철전사들이 일어섰다

천리방선초소와 드넓은 전야  
경공업전선과 건설장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령님 그 품에 피조기를 있고 자란  
천만의 후손들이  
김철의 호소에 화답해나섰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신  
우리 수령님  
한평생 안고사신 념원은  
오직 하나 인민의 행복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수령님의 후손들  
한필의 철을 짜고  
한차지 쇠를 풀어도  
수령님의 그 따사로운 사랑이 어리게

하나의 언젠을 쌓고  
하나의 새 거리를 일떠세워도  
후대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수령님의 그 혁명적일본세로

# 우리의 앞길엔 승리만 있다

신문경

한해가 앞에 있구나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최상급대의 명절로  
인류사적 대경사로 맞이할  
2012년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설레인다  
2012년  
내에게 없고 산 리상과 념원을  
다 꽃피워야 할 때가 바로  
총공격전의 이해다

진군의 발걸음 떠밀어주는  
이 땅의 경이적인 사변들  
다제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들

우리는 수령님의 후손들  
천만시련 막아서도  
든든한 배심과 탁판으로 헤쳐오신  
수령님의 그 불굴의 기질로  
이해도 전전돌파전을 벌려나가리

공장은 공장마다 CNC화동을 높이  
올리고  
거리와 마을들은 선경으로 꾸리며  
대형신의 기지높이  
애국총정의 기지높이

가리라  
김철의 실천력으로  
비약의 생산돌격전으로  
기쁨속에 웃으시는 수령님 높이 모시고  
태양민족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할  
뜻깊은 그날을 향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이 부름안고 일떠선 천만대오 나가는 길  
그 어떤 고난이 앞을 막을수 있리라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신 수령님의 역사를  
강성민영의 역사로 빛내가시는  
장군님을 따라나선 승리의 이 길

아, 우리 장군님  
선군조국의 앞길에 백성의 가치를 주셨나니  
이 부름 기발처럼 날리며  
강성대국대문안에 승리자로 들어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다!

좋은 날 좋은 길을 걸으며  
우리 이룩한것어디인가

오직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세상에 자랑할만한 그 모든것  
말없이 하나하나 마련해온 우리

그 무엇이 두려우랴  
그 무엇이 못해내랴  
천지공파속에서도  
강성대국에로의 도약대를 마련하신  
장군님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지켜올리며  
새해 총공격전의 진두에 서게하시거니

세월은 소리없이 흐르나더라  
허나 내 가슴엔 들려온다  
비약의 세월이 폭풍쳐흐르는 소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이  
은 나라에 메아리치는 그 소리

승리의 불하늘에 터져오를 축포성  
나는 벌써 들으며 산다  
이글이글 사름치는 주체철의 흐름에서  
CNC기계의 동음과  
김철의 생산돌격호소에서

어제날엔 하루에 열흘을 당겨 살았다면  
이해엔 백날을 하루에 빛내며 살아야  
하리  
그때문에  
우리 전진의 걸음은 더 빨라야 하고  
혁신의 보폭은 더 넓어야 하고  
심장은 세기를 안고 세차게 고통쳐야  
하리니

# 나는 강성대국의 비단을 짠다

박정애

창방엔 하얗게 눈이 덮였어도  
태양철의 그 불날을 안고사는 마음  
울긋불긋 꽃비단을 짠다  
필필이 행복의 비단을 짠다

직기바다의 동음은  
새해 진군길에 오른 우리 가슴에  
돌격전의 구령소리로 울리는가  
불라라는 마음담아 비단을 짠다

한필이 늘어가는 이 비단으로  
쳐내들은 꽃인듯 더 아름다워지리  
로인들은 청춘인듯 웃음속에 더 젊어  
지리  
선경의 거리와 마을들은  
더 밝아지고 황홀해지리

올해 총공격전의 맨앞장에  
경공업을 내세워준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담아  
또 한필

사랑 다해 정을 다해  
정실홍실 짜는 한복한복에  
향기도 그윽히 피어나누나

# 피끓는 청춘들아, 앞으로

김윤길

새해의 첫 진군길에  
신들매를 조이며 앞장선 청춘들아  
한결음에 천만리를 주름잡아야 할

청춘, 우리는  
전전돌파전의 회성을 안고 비약하는  
내 조국의 억센 나래

심장의 더운 피를 풀이거  
강성대국 새 아침을 눈앞에 두고  
총공격전에 오른 대고조진군속도는  
주역으로 용맹 떨치는  
우리는 벽찬 이 시대의 역센 힘

위훈의 첫 자리는  
청춘, 우리가 설 위치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내이리라  
강성대국 승리의 기념비들을  
이해의 날과 달우에 받들어올리리라

오, 민족사의 위업이 이루어질  
2012년이어, 내에게 없고 산  
그 모든 리상과 념원을  
다 꽃피워야 할 때가 바로  
이해다  
지금이다  
오늘이다

우리는 열정의 산아  
불가능이란 말 무린 모른다

# 조국이며, 그대에게 병사가 있다

박해철

흰눈덮인 고지우에서  
새해 공동사설을 받아안은  
병사의 이 가슴  
비약하는 조국의 숨결로 놀란다  
수호자의 맹세로 심장은 불란다

김철이 지켜올린 대고조의 불노을은  
나의 전초기를 물들이고  
천리방선 산발넘어  
매아리쳐오누나  
대진군의 우렁찬 산울림이

조국수호도 나의 총대우에  
조국전쟁도 나의 총대우에  
들은 들다나 한껏 무르익으랴  
행복의 오목배고여  
강줄기마다 더 높이 키를 솟구려  
눈부신 만년연제들이여

이 땅우에 그림같이 일떠설  
선경의 새 거리 새 마을  
그 무수한 행복의 창문을 지켜  
인민을 따스히 비단으로 감쌀  
직기바다의 고르로운 동음을 지켜  
병사는 더욱 억센세 총창을 비껴  
든다

김철이 불속에 버리어지듯

날마다를 막으며 뺨어가는 만년제  
방도  
산악같이 일떠서는 언제도  
우리가 밀부리되어 받들리라

우리는 치맛는 불길  
사름쳐 쫓는 주체철의 쇠물로  
강성대국 큰 집에 철의 기둥을 세우려  
인민생활향상의 생명선을 지켜  
별가득 오목을 익히고  
눈부신 선경의 새 거리 일떠세우며  
돌격전의 기수 청년영웅이 되리라

아,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펼쳐며  
새해 총공격전에 나선 조국이며  
민이다오, 돌격로의 앞장에 우리가 서  
있으리니  
청춘들아, 승리의 첫 걸음 크게 내  
던지  
창출담게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청춘담게!

오늘의 혼련은  
레일의 전투영웅을 키우는 용광로  
백두밀림에 매아리치던  
7련대나팔소리 더 높이 울리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  
리라

수령님사용위정신으로 만장악한  
우리는 무적의 총공대오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신은  
백두의 공격정신

가없이 푸르게 열린 새해의 창공에  
은빛매들은 더욱 높이 날고  
철강의 대오는 지축을 울린다  
침략자 미제가 한치라도 덤벼든다면  
원수의 아성을 거는 강철포신들은  
지비를 모르는 징벌의 우뢰를 퍼지  
리라

아, 총대는 강성대국의 기둥  
조국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백두산총대를 틀어잡고 공격전에 나  
섰다  
이 땅에 터져오를 강성대국 만세의 환  
호성  
병사는 총대로 담보하리라

# 오가산자연보호구면적 2배이상 확대

【화평 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국보의 하나인 오가산자연보호구의 면적이 2배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주체97(2008)년 7월 천지탄생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 자연보호구관리소 종업원들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오가산자연보호구면적을 수천정보나 늘이고 11종에 44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들은 1, 2정보의 나무모밭을 꾸려놓고 오가산에 없던 쪽가래나무, 밤나무, 단나무를 비롯한 10여종에 수만그루의 나무모들을 생산하였다.  
한편 3정보의 수목원을 꾸리고 25종에 4,000여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 오가산을 원호 애국심을 지니고 오가산자연보호구면적을 수천정보나 늘이고 11종에 44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제노에서만 있을수 있는 것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음식문화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려는 우리 당의 의도와 리상이 낱을 따라 훌륭하게 실현되고있다.  
최상급의 요리봉사자지인 옥류관 요리전문직당에서는 여러가지 민족요리들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요리들, 지리와 철강산업, 연어로리, 메추리로리 등 명요리들을 맛있게 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풍채아름다운 통라도에 꾸러진 류경통라식당에서는 희귀한 뽕어로리를 맛보며 당의 은덕에 목메어하는 인민들을 볼수 있다.  
그러한 모습들을 대할 때 마다 우리의 가슴속에는 지난해 12월 대동강뽕어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우리 나라에서 뽕어공장을 운영하고 인민들에게 뽕어로리를 봉사하고있는 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가솔까지 집집이 온통 뽕어, 열매속에 묻히니다. 우리 동네이름이 몇가지인지 아시우? 뽕어에는 단뽕어, 살구뽕어, 여름에는 추리뽕어, 포도뽕어, 복숭아뽕어, 가을에는 사과뽕어, 배뽕어, 감나무뽕어, 하여튼 이름이 많구나. 올해부터는 왕다뽕어라는 이름도 생겨날거우다.  
그러며 뽕어자를 다시 꼭 눌러 쓴 로인은 삼태기를 들고 거름부지로 향하였다.  
뽕어는 논밭이 훑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속에 뽕어는 낫을 찢으며, 파인향기였다. 파인나무들의 겨울은 봄을 마중하는 계절인것이었다.  
본사기자 허명숙

# 뽕어로리에 깃든 사랑과 은정

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만이 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뽕어로리!  
거기에는 얼마나 소중한 사랑의 이야기가 새겨져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풍부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뽕어는 오래전부터 로화를 막고 정력을 높여주며 여러가지 질병으로 좋은 장보현제로 써오던 최고의 건강장식식품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었다.  
뽕어에는 사람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 기름질, 탄수화물, 광물질, 비타민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뽕어에는 인민들을 누구나 마음껏 맛보도록 하는 생각이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의 마음을 읽은듯 지

# 고마움의 목소리

우리 장군님의 그런 은정속에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값이 너무도 비싸 평범한 근로인민들은 맛볼 엄두조차 못 내는 뽕어로리를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아무때나 값있게 봉사받는것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찾았던 외국인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어찌 뽕어로리뿐이랴. 도처에 메기, 칠새송어, 철강산양어장을 비롯하여 최신과학기술을 기초한 현대적인 물고기생산기지들이 일떠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빛내게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은정속에 펼쳐질 내 조국의 대일정은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랴.  
우리 인민은 세상이 열백 번 변해도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를것이며 한없이 따르려는 열매의 품에 운명도 미미도 다 맡기고 그 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기꺼이 바칠것이다.  
본사기자 장은영

# 과일나무동네의 겨울

길주군 쌍룡리 37인민반 조종일 가정에서  
이름난 과일나무들이 겨울이 활기를 띠었다. 그는 과일나무들에 거름을 주던 참이었다고 하면서 나무옆에 구멍이 50~60cm가량 파고 진 거름을 흙과 고풍 섞어 잘 묻어 주면 봄에 가서 아이들이 굶지 않고 싱싱한 사과들이 내들 는다고 신신히 나서 말하였다.  
《겨울에 과일나무들은 잠을 자지만 우리 주인들은 더 바쁘다우. 찬바람에 넘어질새라 바람막이를 세우고 추위에 얼새라 비닐로 감싸주고...그리고 또 나무모밭도 가꾸어야지.》  
어느새 곁에 다가온 안주인의 말이였다. 그 말에 우리는 놀랐다.  
과일나무가 70그루나 되는 이 집에서 나무모밭가꾸기란 또 웬말인가?  
로인내에게 이끌려 우리는 마당나무속에 꾸러놓은 작은 온실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수백그루의 과일나무들이 자라 고있었다.  
《해마다 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아 바이는 그들에게 정성껏 키운

좋은 품종의 과일나무모를 안겨주며 잘 심고 가꾸라고 당부 하곤 합니다.》  
정말 로인내의 수고가 많다고 하는 리일군의 말에 조종일 로인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당 의 뜻을 받드는 일인데 힘들게 있나니가.》라고 말하였다.  
《너구나 과일나무를 가꾸는 일이 얼마나 재미나다구. 봄부터 가을까지 집집이 온통 뽕어, 열매속에 묻히니다. 우리 동네이름이 몇가지인지 아시우? 뽕어에는 단뽕어, 살구뽕어, 여름에는 추리뽕어, 포도뽕어, 복숭아뽕어, 가을에는 사과뽕어, 배뽕어, 감나무뽕어, 하여튼 이름이 많구나. 올해부터는 왕다뽕어라는 이름도 생겨날거우다.》  
그러며 뽕어자를 다시 꼭 눌러 쓴 로인은 삼태기를 들고 거름부지로 향하였다.  
뽕어는 논밭이 훑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속에 뽕어는 낫을 찢으며, 파인향기였다. 파인나무들의 겨울은 봄을 마중하는 계절인것이었다.  
본사기자 허명숙

# 행복의 전미

류경통라식당을 돌아보고  
배인 리경화동무는 말했다.  
《뽕어로리봉사를 시작 한지 이제야 여러해가 흘렀지만 이렇게 인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 각이 깊어지곤 합니다.》  
뽕어양어와 로리가공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마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아안는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럼수록 자기들의 가슴속에서는 뽕어로리를 더욱 발전시키

# 행복의 전미

를 더 해 줄 수 있었다.  
그 나날은 로리경영과 품평회 등을 활발하게 벌이며 뽕어로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 봉사자들이 기울인 노력을 우리는 볼수록 기뻐하는 뽕어로리마당에서 느낄수 있었다.  
바로 그러한 로리에서 더욱더 많은 뽕어로리를 맛있게 먹게 하는 평양에 오면 응당 이곳을 찾는것이 습관으로 굳어졌다.  
올 때마다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뽕어로리를 봉사받는것을 보며 나는 생각하였다.  
뽕어에는 다른 물고기에

# 고마움의 목소리

내 나라가 제일  
생활의 매 순간들에 다 그러하지만 뽕어로리를 마주 할 때면 나의 가슴에는 고마움 우리 당, 우리 제도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더욱더 넘쳐나곤 한다.  
사업상관례로 나는 여러해 동안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어느날 우리의 소식을 같이하는 기회에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뽕어로리를 가리키며 이 로리는 당신들같은 귀한 손님들에게만 특별히 정의를 다하여 대접하는 귀물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면

# 고마움의 목소리

어제도 나는 류경통라식당에서 뽕어로리를 맛있게 들었다. 사업상무로 평양에 올라올 때마다 소문을 듣고 한두번 찾아왔었는데 뽕어로리가 이렇게 맛있었다. 이제는 평양에 오면 응당 이곳을 찾는것이 습관으로 굳어졌다.  
올 때마다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뽕어로리를 봉사받는것을 보며 나는 생각하였다.  
뽕어에는 다른 물고기에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사업에 지혜를 합쳐간다. —한덕수평양경제과학대학에서— 최충성 찍음